

신한금융그룹, 박창훈 사장 파격 인사

신한카드, 플랫폼 등 신사업 속도

박창훈 본부장, 차기 사장 낙점
두번째 내부출신... '영업통' 평가
"대대적 체질개선 등 임무 막중"



박창훈
신한카드 차기 사장 내정자

신한금융그룹이 차기 신한카드 사장으로 박창훈 페이먼트(Payment) 본부장을 낙점했다. 통상 자회사 대표 임기가 '2+1'로 이뤄진단 점을 고려하면 '반박자' 빠른 세대교체다. 신한카드의 신사업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차기 신한카드 사장에 박창훈 본부장을 추천했다. 금융권에서는 박 본부장이 부사장을 거치지 않고 사장 자리에 오른 만큼 파격 인사란 평가다. 신한금융은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1968년생으로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과 동갑이다. 진주고등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문 사장에 이어 두번째 내부출신 대표로 궤를 함께한다. 지난 2015년 코드(Code)9추진팀장을 시작으로 ▲영업추진팀장 ▲신성장본부 부장 ▲DNA사업추진단 본부장 ▲플레이(pLa y)사업본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창훈 차기 사장은 조직 내부적으로 '영업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코드9추진

팀과 DNA사업추진단은 신한카드 데이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해당 부서에 몸담았던 시절 남다른 영업능력을 통해 사업 확장을 도모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022년 업무를 수행했던 플레이사업본부는 플랫폼 결제 기술을 담당한다.

신한금융이 파격 인사를 결정하면서 신한카드가 본격적으로 신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 전망이다. 박 차기 사장이 지난 2019년 신성장본부장을 시작으로 미래먹거리 발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업황악화 시기 문 대표의 역량이 요구됐다면 이제는 신사업을 이끌 인물이 필요한 것. 문 대표는 '정통 카드맨'으로 불리며 리스크관리와 전략기획,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신한금융은 이번 인사를 두고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타사와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차별적인 성장 모델템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최고 경영자 교체로 통해 과감한 조직 내부 체질 개선을 이끌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신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가 비교적 뚜렷하다. 우선 '카드 업계 2등'으로 불리는 삼성카드와 격차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신한카드의 누적순이익은 연간 17.8% 증가한 5527억원이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의 순이익은 23.5% 오른 5315억원이다. 지난 2022년 3분기 1313억원까지 벌어진 순이익 격차는 올해 212억원까지 줄었다.

삼성카드의 성장 배경에는 건전성 확보와 플랫폼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지난 2022년 '모니모'를 출범했다. 삼성카드는 물론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모니모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가 모두 모인 '슈퍼앱'으로 평가받는다. 신한카드가 '1등 카드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플랫폼 강화가 요구되는 것.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이번 인사는 신사업 동력 확보라는 뚜렷한 성격이 있다"며 "처음 2년간 부작용 없이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이뤄야 하는 만큼 임무가 막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은행권 대출 한파... 실수요자 '발동동'

상품판매 중단 등 총량관리 영향

▲우량 협약기업 신용대출(PPL) 등 8개다.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을 더 조기 위해 우대금리 폐지에 나섰다. 비대면 영업과 대환대출 등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곳곳 잠그기에 돌입했다.

또한 국민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영업을 중단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 취급 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일부 대환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타 금융기관 대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상품이 대상이다. 금융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은 계속 판매한다.

시중은행이 곳곳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유는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이다. 총량관리에 실패할 경우 금융당국이 내년에 대출 한도를 줄이는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신규 대출 시 우대금리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대출 실수요자들은 연말까지 자금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우대금리가 폐지되는 상품을 살펴보면 ▲우리 주거레 직장인대출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우리 첫 급여 신용대출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대출 ▲참군인 우대대출 ▲시니어플러스 우리 연금대출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 총량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더욱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내년 초까지 기조가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비씨카드, '마이태그' 송년 할인 이벤트

쇼핑몰, 편의점, 여행플랫폼 등 혜택

라인스에서 최대 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이어 매머드커피와 메가커피 등에서는 500원을 할인한다.

비씨카드는 이달 마이태그를 통한 송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여행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항공사 앱에서 20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할인한다. 여행·여가플랫폼에서도 최대 2000원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마이태그'는 맞춤형 할인 서비스다.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서 비씨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 전 해당 혜택을 태그하면 된다. 비씨카드 회원사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타임딜' 마이태그를 진행한다. CU편의점과 스타벅스에서 최대 3000원을 할인한다.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해도 3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무신사와 29CM에서 7만원 이상 비씨카드로 구입 시 3000원 할인한다. 이어 고가 가전제품과 휴대폰은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쿠팡 ▲애플스토어 마이태그를 활용하면 된다.

박복이 비씨카드 전무는 "연말연시를 맞아 비씨카드 고객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뚜레쥬르와 투썸플레이스, 배스킨

/김정산 기자

2금융권, 저축은행 등 매물... M&A 급물살

내년 업황개선 기대감 고조
카드사 등 매력적인 매물 평가



Chat GPT에 의해 생성한 인수금융 이미지.

롯데카드와 상상인저축은행의 매각설이 나오면서 2금융권 M&A(인수합병)가 성사될 지 관심이 쏠린다. 기준금리 인하 등 2금융권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감이 있어서다. 일각에선 예비 인수자가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

MBK파트너스가 인수금융을 5년 연장하면서 롯데카드 매각이 연기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 OK금융그룹은 내달 2주간의 실사를 통해 인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당초 OK금융그룹은 증권사 인수를 시사했다. 그러나 저축은행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말 기준 OK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13조7843억원이다. SBI저축은행(14조8211억원)에 이어 업계 2위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2년 JP모건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롯데카드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지주사와 KT 등이 인수전에 뛰어 들었지만 가격을 두고 입찰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의 몸값을 3조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OK저축은행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하면 단숨에 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다. 현재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상상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조7554억원이다. 1위인 SBI저축은행과 2조원 가까이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셈이다.

이후 롯데카드 자회사인 로카모빌리티를 맥쿼리자산운용에 3961억에 매각했다. MBK파트너스가 본격적인 가격 협상을 시작하면 롯데카드의 몸값을 2조5000억원으로 책정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롯데카드의 베트남 법인인 '롯데파이낸스베트남'도 지난 6월 출범 이래 첫 흑자를 기록했다. 해외 영입이 성공적으로 흘러가는 것 또한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것이라 분석이다.

상상인저축은행뿐 아니라 롯데카드 매각설도 수면 위로 올랐다. MBK파트너스가 UBS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면서다.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를 보유한 대주주다. 당초

이처럼 2금융권의 인수금융 시장이 활성화하는 배경에는 업황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2금융권의 대출업무가 가지개를 걸 수 있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본격적인 영업활황을 앞둔 만큼 카드사와 저축은행 모두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받는 것.

인수 후보자가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해석이다. 다음해 업황개선 조짐이 나오지만, 시장에 변수가 발생하면 인수자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상인저축은행의 가격 협상이 치열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업계 10위권에 드는 우량 저축은행이지만 지난해부터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하면서다.

지난 9월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누적 손실액은 658억원이다. 전년 동기(480억원) 대비 3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29%에서 22.27%로 8.98%포인트(p) 상승했다. 자산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성 비율은 연간 146.73%p 줄어든 124.75%로 집계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카드 매각보다 상상인저축은행 인수가 우선 추진될 것"이라며 "상상인저축은행 인수가 건전성 지표에 따른 리스크가 큰 만큼 OK금융그룹 내부에서도 기업가치 대비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 HVDC 사업 본격 추진

삼성물산이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발맞춰 본격적인 HVDC(초고압직류송전) 시장 공략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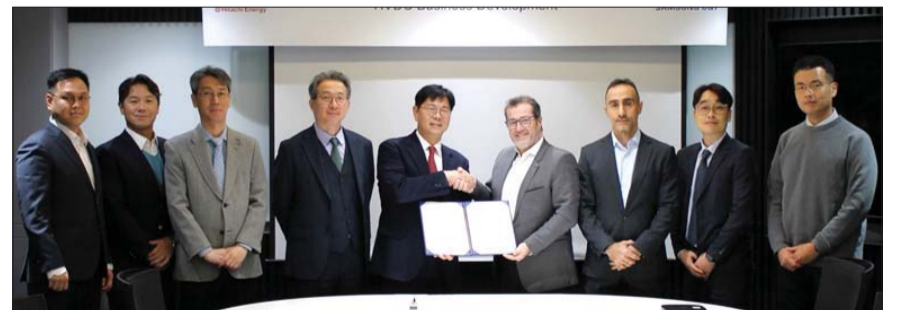
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최근 히타치 에너지와 글로벌 HVDC 사업에 대한 협력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성준 삼성물산 P&G영업팀장(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사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VDC 사

/안상미 기자 smahn1@



최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히타치 에너지 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삼성물산 김성준 P&G영업팀장(부사장·왼쪽 다섯 번째)과 히타치 에너지 알몬드 피네다 영업총괄(오른쪽 네 번째)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